

# ‘태생적 한계’ 중기유통센터, 국감서 또 미운오리 신세

국감서 정책 매장 폐업률 등 지적  
초대형 유통매장 출현 등 시장 급변  
공영쇼핑 등 투자에 살림도 빠듯



중소기업유통센터가 21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못매를 맞고 있다.

대기업 등 거대 자본에 의한 초대형 유통매장 출현, 온라인·모바일을 이용한 구매 패턴 변화 등 유통시장이 격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 확대 명분 때문에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기관이 국감철 단골메뉴가 돼 또 다시 의원들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유통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중소기업유통센터(유통센터)는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과 중소기업전용판매장 ‘아임쇼핑’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지원, TV홈쇼핑·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업, 그리고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센터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아예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를 설립하자는 관련법이 이번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됐다.

14일 중소기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을 오는 19일 진행한다. 유통센터가 포함되는 물론이다.

앞서 산자중기위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정책매장 아임쇼핑의 폐업률이 72%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2011년 3월 당시 행복한백화점 4층에 첫 매장을 연 이후 한 때 전국적으로 25개까지 늘렸지만 이 가운데 현재까지 18곳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하면서다.

김 의원은 또 아임쇼핑 매장에 입점한 2335개 중소기업 제품 가운데 47%인 1112개는 지난해 매출이 ‘제로(0)’였다고 덧붙였다.

역시 산자중기위 소속의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유통센터의 동반성장 물품 81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도입하고 있지만 운영기간 2년 6개월 동안 관련 플랫폼을 통해 팔린 금액은 215억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전체의

85.6%(184억3000만원)를 현대차가 차지하고 있는 등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통센터측은 “동반성장 물 도입 및 운영기업(기관)수를 올해 연말까지 100곳까지 늘리고, 임직원 자율구매 방식에서 기관들 사은품, 기념품 등 단체구매를 확대하는 등 운영 방식도 다각화하겠다”면서 “아울러 운영 상품도 현재 4만7000여개에서 연말까지 5만여개까지 늘리고, 도입 공공기관 외에 현재 26% 수준인 민간 대기업의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산자중기위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의원(국민의힘)은 북한에서 생산한 항공점퍼를 국내로 반입해 TV홈쇼핑에 판매한 한 중소기업에게 유통센터가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난 8일 외통위 국감장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통센터는 해당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생산한 제품들은 북한산 항공점퍼가 아닌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생산한 다른 제품으로, 지적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유통센터가 이번 국감에서 위원회를 넘나들며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는 “유통시장이 기업을 끼리뽀만 아니라 오프라인·온라인까지 경쟁하는 등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관이 주도해 판로와 마케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자금력, 인력, 브랜드 파워 등에서 모든 것이 딸리는데 정책의 지만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순매출 기준으로 960억원으로 1000억원에 살짝 다가섰던 유통센터는 2018년과 2019년엔 854억원, 822억원으로 몸집이 다소 줄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17년부

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빠듯한 살림에 정책적 이유로 2011년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주주인 흥앤쇼핑에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해 150억원(지분 15%), 2015년엔 공영쇼핑에 400억원(지분 50%)을 각각 투자했다. 이때문에 빌린 장기차입금도 현재까지 30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공동 발의한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보다 공격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대외적인 공신력 확보가 가능한 공사를 설립해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나라 예산과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코트라(KOTRA) 때문에 업무 중복을 우려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정책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실제 판로지원공사 설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기부, 현장 규제애로 59건 일괄개선

4대 분야 핵심규제 개선 나서  
판로확보 규제애로 등 불만 토로  
정부조달 진입촉진·부담경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업 자생력 제고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 15일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약육계층 기회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유형별 차이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불가, 조달진입 및 판로확보 규제애로 등 각종 규제·제도와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 및 부담을 토로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기 옴부즈만 주관하에 기업유형별 맞춤 현장 소통을 실시해 공정화·포용화·합리화·현실화 관점에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경영부담을 낮추고 기업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4대분야별 주요 내용은 ▲기업 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 ▲규제 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 등이다.

그 밖에도 세부 사회적 가치 추구기

업별로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 특성상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부 취약할 수 있으나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도 “이번 방안으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일종의 ‘좋은기업’인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로 소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FHD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3500 미니’

링크웨어, 주차시 타임랩스 촬영도

아이나비 QXD3500 mini



링크웨어는 커넥티드 기능을 지원하는 2.7인치 FHD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3500 미니’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이나비 QXD3500 미니’는 전후방 2채널 FHD 영상화질을 지원하는 블랙박스다. ‘소니 스타비스 이미지 센서’와 광역영광보정(WDR), 야간 영상보정 솔루션 ‘슈퍼나이트비전(SNV)’이 기본 적용되어 주행 및 주차뿐 아니라 주차장에도 상시적으로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

장시간 주차지원 기능도 갖췄다. 1초

에 2프레임씩 정해진 시간을 특정 간격으로 저속촬영하는 ‘타임랩스’, 주기적인 메모리 포맷은 물론 ‘포맷프리2.0’ 기능으로 장시간 영상녹화에 대한 안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김승호 기자

## 이브자리 자연주의 침구 ‘에코플레인’

이브자리는 소재, 공법, 디자인에 자연주의 콘셉트를 담은 자연주의 침구 에코플레인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코플레인은 너도밤나무에서 무공해 공정을 거쳐 추출한 섬유를 주원료로 만든 40수면도말 제품이다. 원단 표면에는 편백나무, 제충국, 로즈제라늄 등 천연 발효 성분을 활용한 향균 가공 처리를 더했다.

베이지, 진그레이, 그린, 핑크, 화이트 등 5가지 색상 구성으로 자연의 모습을 표현했다.

/백지연 기자



배달앱 ‘핑동’이 경기도 시흥시와 시흥시 지역화폐 ‘모바일시루’를 자사업에 탑재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허니비스

## 시흥시 지역화폐, 배달음식 주문 사용가능

허니비스, 개발연동 업무협약  
‘모바일시루’ 최대 10% 할인 구매  
광고·입점비 없어 소상공인 만족

경기도 시흥시 지역화폐로 배달음식 주문이 가능해진다.

허니비스는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에 이어, 경기도 시흥시와 지역화폐인 ‘모바일시루’를 핑동의 결제 수단으로 적용하는 개발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흥 시민들은 이르면 연내에 최대 10% 할인 구매할 모바일시루로 핑동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시흥시 소상공인들은 2%의 저렴한 주문 중개수수료만으로 배달음식을 고객에게 전하게 된다. 광고비나 입점비도 없다.

이를 위해 허니비스와 시흥시는 지난 13일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서비스 연동 개발에 돌입했다. 서비스 적용은 오는 11월이다.

이번 협약은 과도한 수수료 및 극심한 광고비 부담, 불법 리뷰, 배달비 할

인 강요 등 기존 배달주문 시장의 폐단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맛과 서비스 질을 향상해 고객 만족을 되찾자는 의미로 민관이 협력한 것이다.

앞서 핑동은 서울시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과 손잡고 ‘서울시 제로배달유니온’ 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탑재하고, 2%의 저렴한 주문중개 수수료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잇고 있다. 지난 9월 16일 그랜드 오픈 후, 핑동의 1주차 주문 건수는 전주 대비 21%, 2주차는 44.2%로 수직 상승했다.

한편, 핑동은 서울 전지역에 주문가능 음식점 약 1만5000곳을 갖추고,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 수단으로 적용 중이다. 핑동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배달음식 주문 시, 배달비를 포함한 10%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건당 2000원까지, 횡수 상관없이 최대 5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